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258.77 (-37.61)	798.81 (-2.86)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3.746 (+0.004)	1410.00 (-6.10)		

m-커버스토리

동전주 ‘숙아내기’ 코스닥 11% 상폐

상장사 유지요건 강화

주가나 시가총액 미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숙아내기’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가 최근 사흘간 무려 50곳 가까이 속출했고,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도 코스닥 전체 10.6%에 달하면서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우선주 제외)이다. 43곳이 지난 5일 공시를 냈고, 6일과 7일 3곳, 2곳씩 추가됐다. 이들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던 상장사다. <관련기사 4면>

30일간 1000원 미만 ‘관리종목’ 45일 연속 땀 상장폐지 될 수도
시총 미달요건도 기존보다 상향
코스피 300억, 코스닥 200억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의 상장 유지 요건은 지난달 1일부터 더욱 엄격해졌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5거래일째엔 상장사가 지정 우려 공시를 내야 하는데, 지난 5일이 이번 요건 시행 후 첫 공시 대상 일이었다. 이에따라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무더기로 나올 전망이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를 포함,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을 밑도는 상

장사는 코스닥 131개, 코스피 32개다. 원래 시행 중이던 시총 미달 요건의 기준도 코스피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되면서 관련 공시도 함께 늘었다. 지난달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44곳, 코스피 12곳(우선주 제외) 등 총 56곳이다. 이 중 28곳이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이 기준을 상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지난 7일 기준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41개(우선주 제외), 코스닥 194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상장사 전체 1820곳 중 10.6%에 달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중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곳은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일단 코스피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에, SH에너지화학은 임원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코스닥의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스, 케이엠제약 등도 자기주식 취득에 나서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이외에도 액면 병합, 인수·합병(M&A) 등이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소규모 상장사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작은 규모 상장사의 유상증자는 자본 희석 우려가 크고, 인수·합병은 이해관계자 복잡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모로 쉽지 않다”며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스스로 올리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ChatGPT로 생성한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수·합병(M&A)·주식병합 등을 활용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관련 이미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스>

‘속도 강조’ 주택 대책 이르면 13일 발표

李 대통령, 13시간 ‘끝장토론’ 결과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방안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30분의 부동산 대책 ‘끝장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주택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다음 7일엔 2차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다. 회의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선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

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회의에서도 ‘속도’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초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고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신규 공급 후보지로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호 이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울 주요 후보지의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어, 지자체가 반발하면 공급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6000가구 공급 ‘원안’을 고수하는 서울시와 1만가구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3일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오이 55%, 애호박 47% 급등… ‘히트플레이션’ 덮쳤다

<더위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2.8% 안정세 찾았지만 폭염에 농수산물 가격 ‘새로운 복병’

전례 없는 폭염이 농수산물 가격을 밀어 올려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오이·애호박·시금치 등 여름철 채소는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해지고, 바다에서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농수산물 가격이 다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더위가 불러오는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6%를 기록한 뒤 5월과 6월 각각 3.2%로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내려왔다. 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농수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변수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특히 채소류는 폭염에 취약하다. 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작물의 생육 속도가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뭄으로 토양 수분 부족까지 겹쳐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산물 역시 연안 수온 상승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참외 도매가격은 10kg 기준 3만94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상승했다. 시금치(4kg)도 같은 기간 5만6239원에서 6만2257원으로 10.7% 올랐다. 오이는 가장 대표적인 품종군인 다다기계통 기준으로 10개당 소매가격이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나 급등했다. 애호박은 1개당 1026원에서 1504원으로 46.6%, 청상추는 100g당 1165원에서 1661원으로 41.7% 올랐다. 최근 이어진 무더위에 채소류들이 메마르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부, 독도 해양조사 반발 日 항의에 “정당한 활동”
▲與 “재난적 폭염, 전기료 충격 최소화 정부에 요청” <사진 뉴스>

▲문진석 “李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정치 공작, 당이 고발조치 해야”
▲폭염 중대본, 범정부 대응 점검…“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폭염에 물부족까지…대구·부산 등 전국 48곳 ‘기상 가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차등…인구감소지역은 혜택 확대

K-뷰티 브랜드, 투자모델 고도화 인수합병·체질개선 ‘몸집 키우기’

K-뷰티산업 투자가치 조명 받아
자본·유통 결합… 경쟁력 극대화
美·유럽 등 글로벌시장 진출 탄력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체급 올리기에서 나섰다. 특히 개별 브랜드 수준에 머물던 전략들이 다양한 투자 모델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모펀드 주도의 체질 개선, 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연합군 형성 등이 맞물렸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뷰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최근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피피비스튜디오스’ 경영권 지분 약 65%를 1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뷰티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을 보유해 국내외에서 K뷰티 영역을 넓혀왔다. 이미 2024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에서 단독 매장을 운영하며 북미 현지에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마련했다. 2025년 말에는 일본 콘택트렌즈 기업 PIA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 K팝 스타 장원영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올렸다. 그 결과 피피비스튜디오스 매출은 2023년 392억원, 2024년 490억원, 2025년 589억원으로 매년 성장세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42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앞서 마녀공장을 통해서도 K뷰티 가치를 극대화한 바 있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하파크리스틴’을 소개하고 있다. /피피비스튜디오스

다. 지난해 5월 마녀공장 지분 51.87%에 19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올해 들어 마녀공장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브랜드 재단장을 단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 유래 가능성 성분에 중점을 두되 브랜드 대표 제품군을 클렌징에서 스킨케어로 다각화한다. 또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매출은 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7% 상승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5% 급증했다.

2023년 코스닥에 상장한 마녀공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2023년 매출 1050억원, 영업이익률 15.1%에서 2024년 매출 1279억원, 영업이익률 14.5%로 외형을 키웠으나 2025년에는 매출 1130억원, 영업이익률 9.3%를 기록했다.

구다이글로벌은 글로벌 유통망 공유와 브랜드 자산 보존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K뷰티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구다이글로벌은 각종 뷰티 브랜드를

인수합병해 연매출 1조원대 기업으로 사례를 키워 왔다. 2025년 실적만 연결기준 매출은 1조4718억원, 영업이익은 273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매출은 294%, 영업이익은 98% 커진 규모다. K선크림으로 입소문을 탄 조선티너, 메이크업 브랜드 티르티르,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 등이 뒷받침된 성과다.

이처럼 뷰티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한 구다이글로벌은 최근에는 투자 방식에서 변화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스킨케어 브랜드 토리든과 ‘글로벌 사업 확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브랜드 합병 대신 소수 지분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양사는 중장기적 사업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독자적인 성장 동력과 브랜드 정체성이 확고한 토리든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구다이글로벌의 뷰티 플랫폼 역할을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토리든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한 181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해외 매출은 62% 늘어 1127억원이다.

국내 한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K뷰티 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입장에서 고유의 경영 체제와 퍼포먼스를 인정받으면서도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매출에 의존한 단발성 기회보다 선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10세대 낸드 맞붙… 승부처 ‘칩 연결’

삼성, 400단 이상 수직적층 제품 선보여
SK, 전력 효율 앞세워… AIDC 정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세대 낸드플래시를 나란히 공개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적층 단수를 400단대로 끌어올린 데 이어 칩 연결 기술까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낸드 경쟁축이 넓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FMS 2026’에서 10세대 낸드를 처음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며 낸드가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400단 이상을 수직 적층한 10세대 V낸드 ‘V10 BV-낸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전작인 286단 9세대 이후 300단대를 건너뛰고 400단대로 넘어간 제품이다. 셀과 회로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웨이퍼 본딩과 셀을 세 번에 걸쳐 쌓는 3스택 기술을 적용해 집적도를 9세대 대비 58% 높였다. 양산은 다음 달 시작한다.

SK하이닉스는 전력 효율을 앞세웠다. 이번에 공개한 10세대 375단 4D 낸드는 이전 세대보다 전력 대비 성능을 2.5배

높인 제품으로 AI 데이터센터 환경을 겨냥했다. 회사는 내년 초 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층 경쟁과 함께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도 나란히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3D 메모리 아키텍처 ‘zNAND-O’ 실물모형을 선보였다. V낸드의 수직 적층 기술에 실리콘과 동전극(TSV)을 결합해 4단 또는 8단 칩을 3D 패키징하는 구조로 현재 개발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고대역폭 플래시(HBF) 첫 표준 규격을 내놨다. HBF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SSD 사이에 놓이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낸드를 패키징 단위로 수직 적층한다. 이번 규격은 낸드 다이들 8단과 16단으로 쌓는 구성을 기준으로 용량을 최대 512기가바이트(GB)까지 정의했다. 프로세서 연결에는 업계 표준인 UCIe를 채택했다. 양사는 지난 2월 표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규율과 테스트먼트가 합류했다.

기술 경쟁이 빨라진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공급 부족으로 주문이 낸드로 몰리면서 eSSD 수요가 급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낸드 계약

가격은 1분기 전 분기 대비 85~90% 오른 데 이어 2분기에도 70~7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기반 확충도 잇따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 Y2와 충북 청주 낸드 신규 공장 M17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후공정 거점은 재편이 검토되고 있다. 충칭 공장은 2014년 7월 양산을 시작해 낸드 조립과 성능 검사를 담당해온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후공정 거점이다. 불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이 공장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분 매각 시 공장 가치는 약 30억달러(약 4조원)로 평가되며 중국계 투자펀드와 현지 반도체 업체가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낸드 경쟁이 적층 수를 늘리는 데서 칩을 어떻게 연결하고 집적하느냐로 넓어지고 있다”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맞추려면 셀 구조뿐 아니라 패키지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기름값 12주 연속 하락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일~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L당 2.9원 내린 1866.2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6원 내린 1849.2원으로 1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력기기3사, 북미 공급부족 대응 나서 생산시설 확충·수익성 위주 선별수주

최소 5년 이상 전력기기 공급부족 전망

북미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생산능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대형 변압기와 차단기 수요가 생산능력을 웃돌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팅신은 미국의 주요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앞으로 최소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소와 송전망에 사용되는 일부 대형 변압기는 발주부터 인도까지 160주 이상 걸리며 품목에 따라 납기가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간 쌓인 수주 물량을 소화하고 신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2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앨라배마 북미 생산법인에 제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4월 준공되면 현지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약 50% 확대되며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765킬로볼트(kV)급 변압기의 시험·생산 설비도 갖추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50% 이상 늘려 멤피스 공장을 미국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6월 미국 유타주 시디시티 생산법인 증설에 착수했다.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기존 약 1만3223㎡에서 7만9338㎡로 약 6배 확장한다. 증설이 완료되면 유타 사업장의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제조뿐 아니라 설계와 연구개발 기능까지 갖춘 북미 복합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설에도 북미 전력기기 수요가 생산능력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포화수준에 이른 가운데 신규 주문이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면서 수주 잔고 회전율이 낮아지고 있다.

생산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물량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물량이 줄고 최근 수주한 고단가 물량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는 데다 고마진 특대형 변압기의 매출 비중도 확대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추석 성수품 수요 증가… 소비자물가 ‘비상’

>> 1면 ‘오이 55%, 애호박 47%’서 계속

문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공급 차질이 겹칠 경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친 이례적인 날씨가 물가 불안을 키웠다.

수산물 시장도 불안하다. 수온 상승으로 폐사하는 어류가 늘면서 수산물 가격 역시 상승세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가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오전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는 약 86만여 마리에 달한다. 수확 노랑진 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 고등어 1kg 도매가는 28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4% 올랐고, 갈치와 광어(자연산)

가격도 각각 41.5%, 1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폭염 여파가 과일 등 성수품 수급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온이 장기화할 경우 과일·채소류의 생육 부진과 출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수산물 역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가 확대되면서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요까지 늘어날 경우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농수산물 가격 상승은 폭염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지만, 추석을 앞두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물가를 다시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떡거리 물가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구윤철 “30억 이하 주택 99%… 상위 1%만 과세 정상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라디오 대담서 세제개편 취지 설명
실거주 중심 보유·거래세 부담 낮춰
장기 거주 땀 양도 공제 최대 80%
다주택 중과는 연차별 단계적 강화
무주택 서민 펀셋 대출 지원 검토
공급·금융 추가대책 발표도 예고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의 비중은 1%에 그친다는 입장을 내놔다. 시세 30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실거주할 시 보유세(종합 부동산세)는 물론, 거래세(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30억 원 이하 주택이) 99% 정도 된다.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강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사는(실제 거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 재경부 청사에서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의 세(종부세) 부담을 줄여 줬다”고 말했다. 또 “양도의 경우에도 30억 원 이하의 집에서 10년 이상 살 경우, 양도를 할 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를 지난 5월9일 재개했다가 다시 유예했

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다”라며 반론을 폈다.

그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p)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가 할증된다”며 “(국민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까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자

는 5%p(할증), 2028년에는 10%p, 2029년 이후 20%p로 현실화한 것이다.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 10%p, 2028년에는 15%p가 할증이 된다”고 했다. 유예가 아닌,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집주인이(비거주 시 세 부담 급증을 피하려고) 실거주를 하다 보면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경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이 지방에 가고 싶으니 좀 팔고 나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이것은 선택이다.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

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돈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도 있다. 대출을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대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떻게 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조만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 장치’가 국회에서 비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다. 시중에서 의견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 초읽기… 성과급 갈등 불붙었다

생산·기술사무직 아우르는 노조 추진
준비모임 사흘 만에 3500명 이상 참여
노조 설립신청서 제출에 내주 출범
성과급 주식 지급·매도 제한안에 반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내부 반발에 기존 노조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노조 설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일부 구성원들은 최근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포괄하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만들어진 준비 모임에는 개설 사흘 만에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에 해당하는 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모다.

통합노조 측 임시위원장은 지난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정식 노조가 출

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가 각각 별도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한다. 새 노조를 추진하는 구성원들은 직군별로 나뉜 조직을 하나로 묶어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성과급 문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존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해당 체계는 향후 10년간 유지하며 지급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

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졌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협상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원들은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은 데다 주가에 따라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적자 시 임금 조정도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섭이 5차 본교섭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도 변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달 중 성과급을 포함한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합노조 측 임시위원장은 출범의 최우선 목표로 지난해 합의된 성과급 지급 약속의 이행을 내세우고 있다. 사측이 제안한 성과급 협상안을 철회하고 해당 사안을 향후 임단협 대상에서도 분리하겠다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사측은 현재까지 통합노조 설립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과 진행 중인 올해 교섭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휴가 끝난 산업계, 임단협 다시 격랑… 車·조선 ‘8월 분수령’

현대차 11일 쟁대위 추가 파업 논의
기아·르노 쟁의권 확보 긴장 고조
조선 빅3 임금·성과급 교섭 재개

국내 산업계가 여름휴가를 마치면서 멈춰 있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일제히 재개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이미 부분파업과 쟁의권 확보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조선업계 역시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기에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8월이 하반기 산업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생산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 800%,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사전 합의, 상여금 인상 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크다.

기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는 물론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온 만큼 올해 실

제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르노코리아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28만4595만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호봉제 재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휴가 기간 교섭을 중단하고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배분’이 주요 변수다. 노조는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을 근거로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영향 변동성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법적 분쟁도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휴가 이후 사측의 추가 제시안과 노조의 파업 수위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며 “자동차와 조선 모두 실적 개선과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월 임단협 갈등에서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국내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모두 동반 감소했다. 현대차 7월 국내 생산량은 13만7449대로 전월보다 22%·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다. 7월 국내 판매량도 4만8113대로 전



HD현대중공업 노조.

년 동월보다 14.4% 줄었다. 여름휴가 일정에 따라 7월 조업일수는 2025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음에도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7월 13일부터 3주 연속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올해 주식병합 1511% 급증… 부실기업 퇴로 악용 ‘우려’

체질개선 vs 자본먹튀

주식병합, 작년 17건 → 올해 274건
기업실적·실제가치 개선 수단이나
고의적 상폐 시 투자자 선택권 없어
최초 상장 시 더 엄격한 평가하고
실적 일정 충족 시 상폐 제외해야

정부가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 퇴출에 나서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저가주를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고의적 자본 먹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단순 수치 기준을 갖고 퇴출을 따지기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퇴출 피하자, ‘주식 병합 러시’

반도체 중심의 증시 편중과 코스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상장사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장 마감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인 곳 중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곳은 48곳(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에 달한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는 235곳(코스피 41개, 코스닥 194개)에 이른다. 7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총 200억원(코스피 300억원) 미만,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상 동전주들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평가다.

〈공시위반 요건 강화〉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기준 조기화	[2026.7월] 150 → 200억원 [2027.1월] 200 → 300억원	[2026.7월] 200 → 300억원 [2027.1월] 300 → 500억원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좌동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좌동
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누적벌점 15점 → 10점 중대·고의 위반 추가	좌동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금융위원회

막다른 곳에 몰린 상장사는 퇴출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식 병합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가리지 않고 ‘주식 병합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공시된 주식 병합 결정은 총 274건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시된 주식 병합 결정 17건 보다 1511% 늘었다.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주식 병합이 급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 병합은 지난 2024년 0건, 지난 2025년 2건 등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7개 기업이 주식 병합 계획을 밝혔다.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피 기업은 마이커, 보해양조, 서울식품공업, 금호에이치티, 금호전기, SG글로벌, SK증권, 상상인증권, KR모터스, 사조동아원, 트리니티항공 등이 대표적이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다. CMG제약, 씨엑스아이, 케이바이오랩스, 사페론, 모아라이프플러스, 에이비온 등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 병합 공시 목적에 “유통 주식 수 감소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라고 적었다. 동전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 수를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주식 병합은 기업의 실적이나 실제 가치를 개선하는 수단은 아닌 만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겉으로 주가를 높이는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선 곳도 있다. 스마트미터카드 제조기업 옴니시스템이 주식병합과 추가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동전주 탈피에 나섰다.

◆ 코리아 프리미엄 제고 기대 속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겨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이 없어져야 말씀하신 공간이 생기고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저성과 부실 기업의 퇴로만 열어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동전주로 전락할 수 있고, 이를 ‘의도된 출구’ 전략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폐’, 즉 대주주가 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과는 달리 고의적 상폐는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자진 상폐는 대주주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투자자가 매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고의적 상폐는 상폐 결정 이후 7거래일 간 정리매매 기간에 ‘혈값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상폐 위기 기업들의 M&A 문의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삼일PwC 상장기업지원센터에는 지난달부터 상폐 기로에 놓인 상장사들의 M&A 문의가 크게 늘어 자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상폐 회피 전략을 찾고자 하는 상장사들의 법률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한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에는 현금 투입 부담이 커 M&A를 일종의 동아줄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피해와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을 낮추고 자본시장 신뢰와 코리아 프리미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의 불법행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부적인 관리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최근 중소형주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소외되고 있다”며 “유례없이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엄격한 상폐 잣대를 바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숙아내고자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최초로 상장할 때 더 면밀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규 상장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틀에 맞춘 퇴출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퇴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 요건을 일정 수준 충족하는 기업에는 상장폐지 요건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시가총액이나 주가, 매출액만으로 단순 ‘부실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우량기업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지수 5%를 반영하고, 최대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내 코스닥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성수동 매장·약국서 피부 진단 받고, 고기능성 ‘더마’ 화장품 산다”

Q 르포

올리브영N 성수·레디영약국

‘어드밴스드 더마 존’서 피부상태 진단
전문약사가 피부별 맞춤형 상담도
제약사, 유통채널에 더마 제품 입점
K-뷰티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팝업의 매카 성수동.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올리브영N 성수’와 ‘레디영약국’이 마주 보고 있다. 한쪽은 K뷰티를 대표하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다른 한쪽은 약국 기반 드럭스토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더마 화장품’을 내세우고 있었다.

지난 7월 올리브영이 더마전문관으로 선보인 ‘어드밴스드 더마 존’. 이곳에서는 9월 30일까지 피부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맞춤형 성분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파란빛 매장과 연구실풍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다.

동국제약과 동아제약 등 익숙한 제약사 로고가 붙은 크림과 세럼이 진열돼 있고, 피부 측정 ‘스킨스캔’ 체험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방문객도 보였다. 측정기를 볼에 갖다대자 직원은 화면에 나타난 수분과 유분 수치를 짚어줬다. 이후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에 대해 소개하고 제품을 추천했다.

피부 진단 체험을 한 방문객 이윤경(25)씨는 “평소에는 내 피부 상태를 정확



서울 성동구 올리브영N성수에서 ‘어드밴스드 더마존’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매장 전경.

히 알기 어려웠는데 같은 연령대와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피부과에서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진단을 매장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더마(Derma)는 피부 과학(Dermatology)에서 유래한 용어로 피부 장벽 강화와 진정, 보습 등 기능성을 강조한 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성분 중심 소비가 자리잡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수요가 늘면서 더마 화장품이 K뷰티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마 화장품은 병원·약국 중심 시장에서 최근에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건너편 레디영약국 성수점 역시 북적였

다. 일반 약국과 달리 화장품 진열 공간을 대폭 늘린 매장에는 더마 화장품과 건강 기능식품, K-뷰티 제품이 함께 진열돼 있었다. 레디영약국은 전문 약사가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매장에 마련된 피부 진단 카메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 뒤 적합한 제품을 약사에게 추천받는다. 성분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등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취급한다.

레디영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A씨는 “피부와 시술 후 사용될 수 있는 더마 제품을 찾아 방문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PDRN, PDLA 등 재생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많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방



서울 성동구 레디영약국 성수점 매장 내부의 모습.

/김수정 수습기자

문객의 60~70%가 외국인이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방문객이 1.5배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레디영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K-뷰티와 더마 화장품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K-드럭스토어’를 표방한다.

제약사도 더마 열풍을 더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파스트 케어 브랜드 ‘후시덤’을 다이스에 출시했다. 전 제품 2000~5000원대 가격으로 가성비 시장을 공략한다. 피부장벽 케어 성분 ‘후시덤-P™’ 제품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아제약 역시 올리브영과 다이스 등 핵심 유통 채널에 적극 입점하며 더마 사업 성과를 가속화하고 있다. 파티온 등 더마 화장품 부문 매출은 올해 2분기 8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5% 성장했다.

더마 관련 사업부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6% 급증한 140억원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표 더마 브랜드인 ‘에스트라’를 중심 라인으로 육성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 제품인 ‘아토베리어 365’ 라인의 신제품 출시와 전문성 강화 전략을 비롯해, MBS(멀티브랜드숍) 및 온라인 채널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국내 사업 내 에스트라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7%에서 올해 2분기 10%로 확대됐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에스트라는 유료모니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판매 1위 더마스킨케어 브랜드’에 선정됐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심장이 아직도 뛰는 것 같아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자
관중석의 함성이 들렸어요

발을 내딛을 때마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던
트랙의 감촉과 거친 숨소리까지

긴장했던 순간도
끝까지 달려본 경험도
모두 다음을 위한 배움이 되니까

오늘 느낀 모든 것을 기억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겠습니다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조엘 진 선수의 꿈을 향한 질주를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육상 국가대표 나마디 조엘 진

* KB금융그룹

김민석·정청래 당권주자 초접전… 민주당 전대 ‘안갯속’

지역별 순회경선 1위 자리 초박빙
권리당원 많은 호남·수도권 ‘승부처’
현재 집계, 대의원·권리당원만 반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순회경선이 중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지역별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누적득표율에서 앞지락뒤지락 순위가 바뀌며 ‘초박빙’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과반을 확보 하던 당 대표에 바로 당선되기 때문에, 각 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에 열 중하는 모습이다.

◆호남·수도권 경선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앞지락뒤지락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8일)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까지 치른 결과,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는 0.86%포인트(P)차다. 충청권역 순회경선(8월1일)에선 김 후보가 정 후보를 0.44% 포인트 차로 꺾고 1위로 올라서더니, 다음 날(2일) 부·울·경 순회경선에선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율을 얻어 김 후보와 격차를 2.8%포인트 차로 벌렸다.

전당대회 첫 수도권 경선이 벌어졌던 지난 8일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 정 후보를 누적 총 득표수에서 앞서면서 당 대표 선거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



송영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집계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만 집계됐을 뿐, 대구·경북·경남(5%) 기중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 여론조사(30%)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선출직 최고위원의 남은 한자리를 놓고 ‘친청계’ 이성운 후보와 ‘친명계’ 김용 후보가 경쟁하는 모양새다.

권리당원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권(15일), 서울·경기(16일) 순회경선에서 선거 유곽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당시에 호소했다. 민주당 152만 권리당원 중 호남에 50만명, 경기·서울에 58만명 등 두 권역에 전체의 71%가 밀집해 있어 중요도가 높다.

◆9일 연설회에서도 ‘명청대전’ 신경전 계속

김민석 후보는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강릉 국회의원 재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서울 시장 선거의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상징할 것이고, 강릉의 승리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협지의 승리를 상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후

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강릉 보선에서 이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범민주 진보 연합 단일대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반명(반이재명), 반명을 외치면서 분열, 분열을 외치면서 신천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라져 있다”며 김 후보 측을 나무랐 다. 이어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

고 비난받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한다. 저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 때 이재명(당시) 대표 바로 옆자리 짝궁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는데 정청래는 반명이 라고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반명(反이재명)’ 프레임에 반박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에 공격을 펼치며 김 후보와 함께 협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가 승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며 “일부 사람들은 강원도의 승리를 정청래 당 대표의 승리로 선전하지만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를 띄워줬지만 당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윤여계인 세력으로 척결시켜야 할 정치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 어쩌면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당 대표를) 또 하겠다’는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면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국힘 쇄신안 꺼내 ‘사퇴론’ 정면돌파 여야, 부동산·증시 해법 경쟁… 민생 정조준

오는 15일 광복절 전후 쇄신안 발표
‘당원 중심·잘 싸우는 정당’ 내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년을 앞두고 오는 15일(광복절) 전후로 쇄신안을 발표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퇴 여론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당권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대어(對與) 공세에도 고삐를 쥔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당내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비전을 담은 쇄신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쇄신안은 다가오는 광복절 전후에 발표할 계획인데, 정확한 발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번 쇄신안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운영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잘 싸우는 정당’ 역시 장 대표가 내세우는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출작공작자 평가 혁신 태

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라면 당내 문제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두고 “이번 TF에서는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국민, 당 그리고 당원을 위해 쏟아붓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이번 쇄신안 발표는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과 시민 2만2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황희 ‘버스 하우스’ 제안에 여야 못매

민주당 지도부 “실현 가능성 낮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주거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이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우물”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마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은 여야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덜란드 암스테



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며,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주거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황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8일) 자신의 SNS에 “이번 ‘폐버스 하우스’ 논란은 집권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와 부동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버려진 버스가 아닌 안정된 주거 공간”이라고 적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달라서 유럽과 달리 이러한 정책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청년이 처해 있는 주택 관련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확대 개편
국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등 비판

여야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증시·부동산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다.

부동산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도권 대출 규제로 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로 볼 수 있는 2025~2026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로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 세대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예정이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테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대 개편하는 TF엔 한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사회수석부위원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부동산 관련 상임위 간사 등 현역 의원 14명이 참여한다. TF는 이번주 후반에 첫 회의를 열고 논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급을 해보자”며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매입 임대 확대, 모듈러 주택·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주택 예산 반영 등이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직접 당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7일 제8차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이 오른다면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집값이 잡히겠다.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지난 8일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현재 세제개편안은 더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반납을 원하는 세제개편은 화수해 가시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다시 들여다 본다. 이 두 개편안은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어서 보안을 요청한 만큼 민주당도 의원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기업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커져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완화 검토 상호금융, 여신확대 기대감 ‘술술’

정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때
‘입주 어려움’ 민원의 후속 조치
가계대출서 집단대출 제외 거론

상호금융권의 여신 확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잔금대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간 집단대출은 신용대출과 함께 가계대출 총량 항목에 묶여 관리됐다.

잔금대출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입주 시점에 남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 시에는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일괄 심사를 거쳐 취급하는 ‘집단 잔금대출’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어느 한 시민 참여자가 잔금대출 규제 2년 전 계약한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이) 확정된 건데 사후에 (가계대출 강화 등)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라는 거냐”는 민원이 있다며 “경계선을 그었을 때 상처를 입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집단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여신 영업 확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올해 초 제한됐던 신규 대출 취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상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다음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도 새롭게 부여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를 ‘0%’로 설정했다. 기존 취급했던 대출 규모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게 된 셈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가계대출 대부분이 잔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대출이었다”면서 “이 부분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빼주면 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으니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올해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 물량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잔금대출 공급을 열거하면 그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연체를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연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총대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 연체를 관리 자체가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다. 반면,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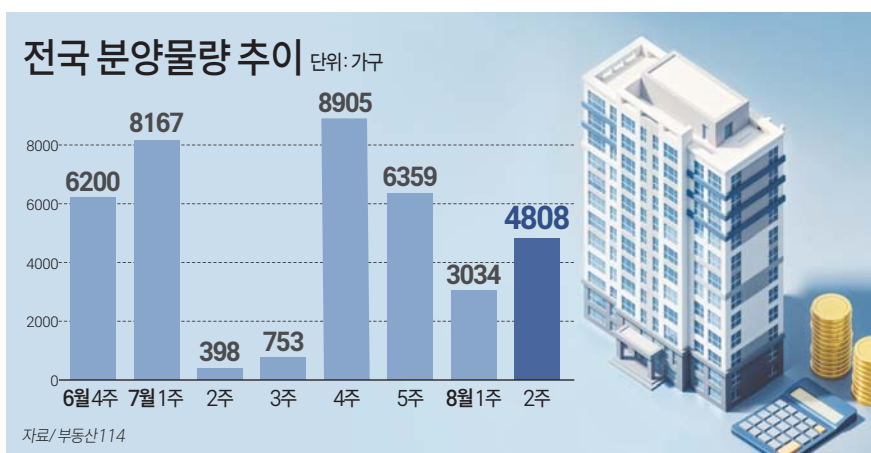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 기대감을 나타내기에는 이르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이번주 ‘한강푸르지오’ 등 4808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전국 8개 단지… 일반물량 3284가구
‘썬잇클라비온’ 등 7곳 모델하우스

8월 둘째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48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284가구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세종시 다솜동 ‘세종우미린센타파크’, 부산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12개동, 전용면적 84~180㎡, 총 2432가구 규모(오피스텔 250실 별도).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선 시네폴리스역(가칭)이 계획돼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시네폴리스역(가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포한강로 풍곡IC 개통도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한강시네폴리스는 영상·

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며,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썬잇클라비온’,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경남 진주시 이현동 ‘포레나힐스테이트진주’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에 소사본1-1구역 재개발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으로 조성되며,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로 구성되는 주거 복합 단지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 115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39~45㎡ 261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가는 소사역 역세권 단지이며, GTX-B 부천종합운동장역(예정)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부천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역 로데오거리, 성무정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美 고용부진… 금리인상 확률 57% → 44%

미국 비농업 일자리 하락 영향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조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고용지표 한 번에 과반 아래로 떨어졌다.

9일 미 노동통계국(BLS)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월보다 2만3000개 줄었다. 5월과 6월 증가 폭도 각각 6만6000개, 3만7000개 낮아져 두 달간 총 10만3000개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렸지만 경제활동참가율도 61.4%로 지난 1월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낮아진 실업률만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난 8일 국제금융센터 집계 기준 9월 인상 확률은 57%에서 44%로 13%p 하락했다.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시장 반응은 위시가 추진해 온 통화정책 소통 방식의 첫 시험대가 됐다. 위시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취임 이후 포워드 가이드스(중앙은행이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방식)를 정책결정문에서 삭제하고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워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책결정문은 전망을 피하고 사실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포워드 가이드스 축소가 시장금리 변화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심판이 아니라 공을 보고 경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시가 한 달치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준이 말을 줄인 만큼 시장은 개별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위시 체제 분석 보고서에서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리 변동성과 기간프리미엄(장기채 보유에 요구되는 위험보상)이 상승하고 미국발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미국 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추가 인상과 달러 강세에 따른 대외 압력이 일부 완화됐으나 한은의 국내 금리 인상 근거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모두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고 추가 인상 기조를 예고했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오는 12일,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6일 발표된다. 한은은 PCE 발표 다음 날인 27일 금통위를 열지만 연준의 다음 FOMC는 9월 15~16일이다. 미국 물가는 확인하되 연준의 실제 결론을 듣지 못한 채 먼저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드사, 캐릭터 카드로 1020세대 공략

KB국민 ‘캐치! 티니핑’ 2종 출시
현대 ‘던전앤파이터’ 한정판 카드
IBK기업銀, 포켓몬 7종 체크카드

카드사들이 인기 캐릭터 체크카드를 내놓으며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실물카드 이용 고객이 점차 줄어들자 캐릭터 디자인을 앞세워 10·20세대 소장 욕구를 자극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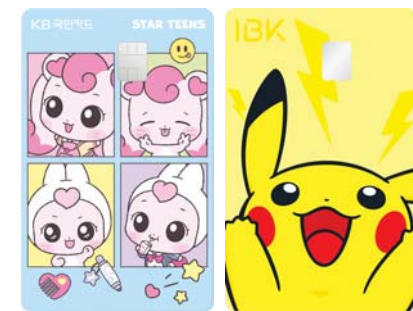
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캐치! 티니핑’ 디자인 카드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티니핑은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IP다.

캐릭터 디자인은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와 ‘KB스타틴즈카드’에 적용된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에는 날씨 요정 티니핑과 함께 떠나는 여행 콘셉트 디자인이, KB스타틴즈카드에는 티니핑과 함께하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한 디자인이 담겼다.

현대카드는 ‘던전앤파이터’ 캐릭터 한정판 카드를 선보인다. 던전앤파이터는 네오폴이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액션 게임이다. 지난 2005년 출시 이후 20년 가까이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카드 디자인은 ‘코지’, ‘퓨리’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코지에는 마카엘라를 위트 있는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퓨리에는 마카엘라 원화와 홀로그램을 활용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은행권에서도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KB국민카드 ‘KB스타틴즈카드’ 플레이트(왼쪽)와 IBK기업은행 포켓몬 체크카드. /각사

카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포켓몬 7종 체크카드를 내놨다. 파카쥬, 피아리, 꼬부기 등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이 활용됐다.

포켓몬스터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IP다. 지난 5월에는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인파가 몰려 행사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출시된 포켓몬 교통카드가 잇따라 품절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캐릭터 카드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10·20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 간편결제 확산으로 실물카드 이용률이 줄어들자 1020세대의 소장 욕구를 자극해 카드 발급을 유도하려는 것.

장기적으로 미래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젊은 층을 확보하면,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신용카드 이용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고객 ‘확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5년간 한계 건설사 3배 ↑… 전망도 암울

건설산업연구, 2025 외감기업 경영실적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져 이자도 못내는 한계 건설사들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물론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도 모두 악화되면서 향후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5년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과 구조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1~2025년) 외부감사 대상 건설기업 2004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안정성·성장성·활동성 등 전 지표가 동반 악화됐다. 이번 분석은 2021~2025년 재무제표 확보가 가능한 건설업 외감기업 2337개 중 해당 기간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333개사를 제외한 2004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먼저 건설사 전체의 수익성이 뚜렷하게 악화됐다. 매출은 역성장하는 반면 공사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겹친 탓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3.4%로 낮아졌고, 매출액순이익률은 2021년 4.2%에서 2025년 2.3%로 감소 폭이 더 컸다. 총자산이익률(ROA)은 2021년 5.2%에서 2025년 3.6%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1%에서 5.7%로 하락해 자산·자본을 활용한 수익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이처럼 연구원은 “공사비 상승과 함께 공사 지연 취소, 프로젝트파인랜싱(PF) 리스크 확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동시에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성미 기자

교육업계 맞수 윤석금·장평순 상조시장 1·2위 ‘뜨거운 경쟁’

〈웅진그룹 회장〉

〈교원그룹 회장〉

웅진그룹 업계최초 선수금 3조 돌파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기업’ 가속

교원그룹 상조업 진출 15년만에 2위
전통장례명장 위촉 등 서비스 강화

‘동지이자 선의의 경쟁자.’

한때 같은 교육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상조업계에서도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윤석금 회장은 지난해 6월 상조업계 1위 회사를 인수해 ‘웅진프리드라이프’로 탈바꿈시키며 상조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 특히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선수금이 3조원을 넘어서며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상조업 진출은 장평순 회장이 윤 회장 보다 한참 앞섰다. 장 회장은 2011년 당시 ‘교원라이프’를 직접 설립하며 교육, 여행, 생활가전 등에 이어 상조업에 진출했다. 교원라이프는 선수금 기준으로 2023년에 업계 ‘TOP 3’에 이름을 올린 후 올해에는 상조분야만 7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보람그룹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80년대 당시 학습지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에서 경쟁을 시작한 방문판매 업계의 두 거목이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 상조에서도 1·2위를 하며 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총 선수금은 웅진프리드라이프가 2조9734억원, 교원라이프가 1조7369억원으로 1·2위다. 다만 웅진프리드라이프는 4월초 자체 집계 결과 선수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

이외에 보람그룹(7개사 합계)이 1조6817억원, 소노트리니티그룹 계열 소노스테이션(옛 대명스테이션)이 1조2849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업계 1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웅진그룹 품에 안긴 후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기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1월 웨딩홀 사업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웅진그룹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키스토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웨딩·케이터링 전문기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그랜드힐컨벤션(강남·보태가마지오(성수)·웨딩시티(신도림) 등 서울 핵심 상권에 있는 웨딩홀 운영을 시작했다. 또 지난 3월 구로구에 서울 첫 직영 장례식장 ‘월낙원’을 개장하는 등 현재 전국 16곳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업인 상조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웅진’ 브랜드를 정식 적용하며 5년 만에 상조 라인업도 전면 개편했다.

교원라이프는 상조업 진출 15년 만에 업계 2위에 올라서며 강자가 됐다.

교육(빨간펜), 생활가전(교원웰스), 여행(교원투어), 호텔(더스위트호텔 등) 등 다양한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한 효과가 컸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교원투어 여행이 지와외의 연계가 주효했다. 양사의 협업으로 교원라이프 회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 상품의 납입금을 활용해 여행이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여행 전환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원그룹은 또 ▲웨딩(결혼정보·웨딩서비스) ▲헬스케어·뷰티(돌참대, 안마의자, 의료가전, 전동휠체어, 프리미엄 스파) ▲장례·장지(장례식장, 장지 컨설팅) 등 라이프케어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했다. 장례식장 ‘교원예움’은 현재 전국 8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원라이프는 최근엔 우리나라 1호 전통장례명장인 유재철 명장을 장례문화·서비스 품질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장례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그룹, 리튬 사업 수익성 회복

아르헨티나 법인 첫 분기 흑자 달성

포스코그룹 리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사업이 법인 설립 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고 광석리튬 사업도 적자 폭을 줄였지만, 수산화리튬 가격 약제와 높은 스포듀민 가격 등 사항 변수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아르헨티나는 2분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60%, 매출은 290% 증가하며 영업이익 110억원으로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복수의 고객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인증을 진행 중이며, 4분기 인증 제품 판매가 시작되면 미인증 제품에 적용되던 10% 안팎의 할인 판매가 종료돼 평균판매단가(ASP)도 상승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시험운전 중인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공장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는 2단계 산업용 탄산리튬이 배터리급과 유사한 가격에 거래되는 반면 생산원가는 1단계보다 kg당 3달러 이상 낮아 정상가동 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석리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필라리리튬솔루션은 2분기 매출 1025억원에도 약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이어갔다. 원료인 스포듀민과 완제품인 수산화리튬 간 스프레드가 악화된 탓이다. 스포듀민 가격은 과거 정상비율인 4~5%, 호황기 8% 수준을 넘어 현재 수산화리튬 가격의 약 12%까지 올라 원

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수산화리튬 가격은 약제다. 중국 금속 가격 정보업체 장강유색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배터리급 탄산리튬은 t당 14만 5000위안, 수산화리튬은 13만 3500위안으로 집계됐다. NCM(삼원계) 배터리 비중 축소와 LFP(리튬인산철)·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에 따른 수산화리튬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격 약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광산 재가동은 포스코에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중국 젠사위 광산의 안전생산 하가를 확보하고 호주 광산들이 증산에 나서면서 3분기 리튬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스포듀민 가격 비율이 정상 수준인 8% 이하로 내려가면 광석리튬 흑자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광산 재가동 영향이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고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해 55% 증가가 예상되는 ESS용 리튬 수요를 바탕으로 실적 반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투자은행 씨티(Citi)는 젠사위 광산의 가동률이 아직 50%를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생산능력을 10만t까지 늘리되 3~4단계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조사(PFS)와 내년 말 최종투자결정(FID)을 거쳐 투자하고, 광석리튬도 스포듀민 가격 안정에 맞춰 증설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전자, 한랭지 HVAC 솔루션 고도화

美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협업

삼성전자가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차세대 난방 기술 확보에 나선다. 북미 등 한랭지역을 겨냥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한랭지용 증기압축식 난방과 멀티 솔루션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며 이후 미국 알래스카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단일 압축기를 기반으로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난방과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증기압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증기압축 기술은 냉매를 압축·순환시켜 외부의 열을 실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난방과 냉방, 온수 공급 등에 활용된다.

증기압축 기술은 외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난방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특히 북미와 북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30도 이하의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극저온에서도 효율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압축기에 회전식 스크롤 방식을 적용한다. 두 개의 스크롤이 맞물려 회전하며 냉매를 압축하는 구조로, 기존 피스톤 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장시간 운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냉매량을 조절하는 ‘플래시 인젝션’ 기술도 적용한다. 장시간 가동으로 열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기기가 감지하면 필요한 냉매를 추가로 주입해 압축기 과열을 막고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을 냉난방 겸용 시스템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 등 다양한 HVAC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난방 부분의 전기화 수요가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효율 히트펌프 제품군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북미 히트펌프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주거용 히트펌프 시장은 2025년 6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할 전망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실제 극저온 환경에서 삼성의 독보적인 고효율 기술과 기기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생산확대… 실적개선 박차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체계 구축
수입규제 맞물려… 수익성 제고 전망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통합 생산라인 가동 확대와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태양광 제품에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한 한화솔루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잉곳부터 모듈까지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가격 경쟁력과 공장 가동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태양광 셀·모듈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일부 파생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관련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수입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을 밑돌면 그 차액만큼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잉곳과 웨이퍼·셀·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의 추가 관세도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규정됐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화큐셀 제품은 이러한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지난 6월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셀 생산을 시작하며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체계 구축을 마쳤다. 공장이 3분기 중 완전 가동되면 잉곳과 웨이퍼·셀을 각각 연간 3.3GW, 모듈을 3.5GW 생산할 수 있다. 기존 달틴 공장의 모듈 생산능력 5.1GW를 더하면 미국 내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8.6GW로 늘어난다.

생산 확대에 따라 첨대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반영액이 늘어나는 점도 수익

성 개선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은 2분기 2140억원이었던 AMP C 반영액이 3분기 약 2300억원, 4분기 약 3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미국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한화솔루션이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조5826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0%, 200.3%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수입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큐셀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카터스빌 공장의 통합 생산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판매량과 AMP C 반영액이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I 수익화 두 갈래… 네이버 ‘인프라 베팅’ 카카오 ‘B2C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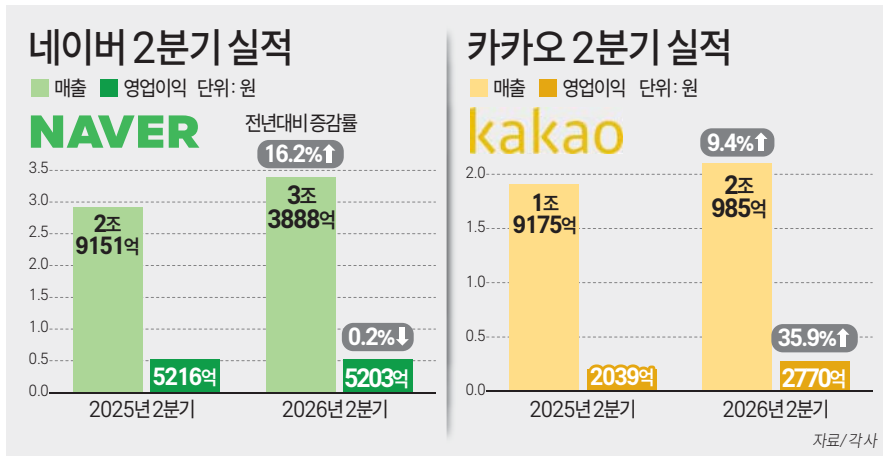
네이버, AI팩토리 20%대 마진 기대
GPU 감가상각 6년 투자 부담 완화
카카오, AIDC 낮은 수익성에 선긋기
카톡 중심 AI 추천·주문·결제 확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면, 카카오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따져 인프라보다 이용자와 맞닿은 B2C AI 서비스에 집중하는 ‘실리 전략’을 택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이 같은 전략 차이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수익화로 이동하면서 국내 양대 플랫폼사가 AI에서 돈을 버는 방식도 갈리고 있다.

◆네이버, AI 인프라 직접 투자…“중장기 20%대 마진 기대”

네이버는 AI 컴퓨팅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프라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향후 독립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는 전략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7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생성형 AI의 확산,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AI 에이전트 등으로 글로벌 AI 컴퓨팅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확산하면 컴퓨팅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단위 연산 비용이 낮아질수록 기업들의 AI 도입과 AI 에이전트 활용이 확대돼 전체 연산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추진하는 AI 팩토리의 수익성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희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

FO)는 AI 팩토리의 마진율에 대해 “초기에는 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0%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대규모 선행 투자에 따른 단기 비용 부담이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은 3조38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203억원으로 0.2% 감소했다.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투자 성과를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네이버는 GPU 감가상각기간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했다. 김 CFO는 장기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사

용기간이 기존 감가상각 연한보다 길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카카오 “AIDC 수익률 낮다”… B2C로 승부

카카오는 다른 계산을 내놔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카카오톡이라는 대규모 이용자 접점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감내할 재무적 부담 대비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수익률(ROI)이 높지 않다”며 “카카오의 강점인 B2C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AI 인프라 시장의 수익성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GPU와 AI 서버 등 하드웨어의 세대교체 속도가 빠른 데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공급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2조985억원, 영업이익은 2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35.9%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카카오 게임즈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한 계속사업

기준으로도 핵심 플랫폼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특비즈와 커머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부문 매출은 1조2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기존 플랫폼에서 확보한 이용자와 수익 기반을 AI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카카오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와 자사 AI를 연결하는 ‘버티컬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첫 사례가 쿠팡이츠와 추진하는 에이전트 간 연결(A2A)이다. 카나나인 카카오톡에서 AI가 대화 맥락과 이용자 취향을 파악해 메뉴를 추천하고 주문·결제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결국 양사의 목표는 AI를 새로운 수익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돈을 버는 지점이 다르다. 네이버는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감수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자체를 사업으로 키우려 한다. 반면 카카오는 인프라 투자 부담을 낮추고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가 기존 플랫폼의 이용빈도와 거래를 확대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헬로비전, 케이블 부진에 신사업도 고전

케이블TV 매출 5년 새 17% 감소
IPTV 가입자 유료방송의 60% 차지
모회사와 가입자·알뜰폰 경쟁 불가피

LG헬로비전이 케이블TV 업황 침체로 실적 부진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 핵심인 IPTV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장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의 방송사업(케이블TV) 매출은 2020년(3385억원)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매출이 약 17%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2811억원에 그쳤다.

유료 방송 업계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케이블 TV와 IPTV 사업자는 매출액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부에 납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한다. 여기에 각종 설비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 방송 사업의 핵심은 IPTV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IPTV 가입자(2153만명) 비중은 유료 방송 전체(약 3615만)의 약 60%에 달했다. 반면 케이블TV 가입자는 절반에 그쳤다. 이중 LG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

입자 점유율은 9%대 수준이다.

사실상 유료 방송으로는 사업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LG헬로비전이 그나마 가입자 확장을 노려볼 수 있는 IPTV 사업권이 모회사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IPTV를 직접 운영하며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LG유플러스가 IPTV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LG헬로비전의 케이블 TV, 인터넷 가입자가 이동

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결합 구조를 OTT로도 확대하고 있어 가입자 이탈을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사업인 알뜰폰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동일한 망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마케팅 경쟁력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신사업으로 키워온 렌탈 서비스 사업도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쟁사와 비교하면 열세다. 지역 기반을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뮤지엄엘’ 운영도 사업 추진 1년 만인 지난해 7월 철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LG헬로비전이 초기



LG헬로비전 로고.

/LG헬로비전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그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2019년 LG유플러스는 CJ ENM으로부터 CJ헬로(현 LG헬로비전) 지분 절반 가량을 약 80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인수 직후 LG유플러스의 IPTV 시장 점유율은 당시 약 11%에서 25%로 높아졌다.

/조민선 기자 msjo@

SK텔레콤, 장기고객 혜택 ‘경험형’으로 확대

비스타 워커힐에 고객 400명 참석
최현석·김희은 셰프 코스요리 선보

SK텔레콤은 ‘T 장기고객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 서울 행사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텔레콤과 10년 이상 함께한 장기고객에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린 지난 8일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오프닝 무대 호스트로 등장해 고객들을 직접 환영 인사를 전하며 특별 게스트 최현석·김희은 셰프를 소개했다. 초청 고객을 위한 감사 카드와 선물도 준비했다.

정 CEO는 “SK텔레콤이 통신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왔다면, 오늘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고객님의 한결같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테이블 데이’ 오프닝 무대에서 장기고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다. /SK텔레콤

로 늘 고객님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서 최현석·김희은 셰프는 특별 구성한 코스 요리와 라이브 쿠킹쇼를 선보였다. 두 셰프는 동일한 재료와 주제를 각자의 개성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준비해 메뉴의 특징과 조리 과정을 직접 소개하며 장기고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두 셰프가 행사 참여 고객 중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고객에게 직접 완성한 요리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역대 장기고객 초청 행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올해 5월 진행된 장기고객 행사 ‘쉐캉스 데이’를 통해 고객의 사연이 담긴 콘텐츠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조회수 685만회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경험 중심의 장기고객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국 5개 도시에서 테이블 데이를 진행하고 장기고객 동반인을 포함한 총 1200여명을 초청한다. 오는 15일(광주), 16일(대전)에도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심야 시간을 단독 대관해 ‘어드벤처 데이’ 행사도 연다. 고객들은 오는 18일까지 T 멤버십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또 오는 12월에는 뮤지컬 시카고 중 일부 회차를 단독 대관한 상연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LG유플러스, 브로드컴과 ‘AI 공유기’ 개발

와이파이8 자동복구 기술 검증 성공
NPU 탑재 공유기서 AI 모델 직접 구동

LG유플러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지능형 홈 네트워크 구현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칩을 탑재한 가정용 공유기가 인터넷 품질 이상을 스스로 감지·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와이파이8 플랫폼을 활용한 홈 네트워크 자동 복구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게임, 초고화질 IPTV 등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실증을 통해 고객이 인터넷 품질 저하를 체감하기 전에 AI가 미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브로드컴과 가정용 공

유기 내부에서 AI가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엣지 AI’ 기술을 검증했다. 브로드컴이 AI 연산을 지원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와이파이8 플랫폼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가 기존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네트워크 품질 예측 AI 모델을 공유기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경량화했다.

특히 공유기 역할을 인터넷 연결 장비에서 AI 기반 품질 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한 점을 주목했다. 공유기가 네트워크 상태를 스스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브로드컴코리아의 신남승 무선 브로드밴드 영업총괄 전무는 “이번 실증을 통해 브로드컴의 와이파이8 플랫폼에서 AI 모델을 직접 구동해 공유기가 지능형 품질 관리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전세계 최초!

재밌고~
맛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VS



07.24(금)~08.16(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주최, 주관



*오리온



(재)마포문화재단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토크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공연문의

02-766-9001

“국내투자 세제혜택 늘었지만 장기적 자산 형성 더 어려워져”

논란의 ISA 개편

생산적금융 ISA, 국내주식 비과세 개편 시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
납입한도 이월 제도 폐지에 ‘불만’
제검토 요구에 세부방안 조정 가능성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내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새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까지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기존 ISA 제도 개편 방안이 함께 담겼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최대 10년간 운용할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가입자에게는 새로운 절세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 국내 투자 혜택 확대했지만 기존 ISA 축소에 반발

정부는 가계 자금을 국내 기업과 자본 시장으로 유도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식과 성장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장기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생산적금융 ISA 자체보다 기존 ISA를 함께 손질한 데 집중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엇갈린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현재 기존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 간 유지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남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이듬해 최대 3000만원까지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기존 ISA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하나의 계좌에서 장기간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리던 전략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득이 적을 때 남겨둔 납입한도를 향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활용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투자용 ISA를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ISA의 장기 운용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만기를 미리 늘릴 수 있는지 묻는 투자자(ISA 가입자)들이 있지만 아직 법 개정 전이어서 확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 ETF 투자자도 선택 폭 좁아

기존 ISA에서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에

는 담을 수 없다. 기존 ISA에서도 해외지수 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리는 어려워진다. 일부 투자자가 미국 주식 직접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20~30대는 전체 ISA 가입자의 41%를 차지했지만 가입금액 비중은 27%에 그쳤다. 당장 채우지 못한 한도를 소득이 늘어난 뒤 활용할 수 있었던 이월 혜택의 필요성이 큰 계층이다.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기간과 이월 납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IS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국내 투자 혜택 확대와 별개로 기존 ISA의 장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통상 7~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기존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 세부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방산 빅4,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세 ‘주목’

방산주, 올해 코스피 상승률 절반
이달부터 신규 계약 가시성 핵심 변수

중동 전쟁에도 웃지 못했던 국내 방산주가 다시 날아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부터 주가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형 방산주 4곳은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평균 26.3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8.52%)의 절반수준인 셈이다.

방산주가 힘 못 쓰는 배경으로는 기대보다 더딘 실적 개선 속도가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면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 9조2929억원, 영업

이익 1조36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 58.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동일 기간 외국인 매수세도 같은 흐름을 탔다. 강태호 대신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인 K9 자주포를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수주가 하반기 내 결정될 수 있어 수주잔고 성장 여력이 크다”고 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기대에 못 미쳤다. 2분기 매출 1조1101억원, 영업이익 10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29.5% 증가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은 부진했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1조167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43.1% 감소했다. 현대로템도 2분기 매출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은 1조6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324억원으로 9.7% 감소했다.

다만 8월부터는 분위기가 반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산 특성상 대형 수주가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견인하는 만큼 신규 계약 가시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부터 국내 양산과 폴란드 등 해외 수출 물량이 확대되며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대어 가뭄에 IPO 지각변동 NH·삼성, 대형딜로 ‘선두’

NH투자증권 6795억, 삼성 6287억
상반기 최대어 케이뱅크 공동 주관
KB·미래에셋·한투 순으로 뒤이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국내 기업 공개(IPO)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무신사와 구다이글로벌, 소노인터내셔널 등 조 단위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대형 IPO 주관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해 IPO 공모총액 기준 대표 주관 실적은 NH투자증권이 679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증권이 628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KB증권(3100억8800만원), 미래에셋증권(2058억 3700만원), 한국투자증권(14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IPO 리그테이블 정상에 올랐던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대형 딜 부재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상반기 최대어였던 케이뱅크 IPO를 공동 대표주관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게 축소됐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기업(스팩·리츠 등 제외)은 17개(유가증권 시장 1개·코스닥시장 1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금액 역시 약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약 2조2000억원 대비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신영증권은 올해 연간 IPO 시장 규모도 기존 전망보다 축소해 64~68개 기업, 공모금액 3조4000억~3조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에

는 LG CNS와 서울보증보험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대어급 기업 4곳이 상장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케이뱅크 한 곳에 그쳤다”며 “중복 상장 이슈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절차를 중단한 것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IPO 시장 둔화는 증권사들의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기업금융(IB) 수수료 수익은 1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53억원)보다 48.4% 감소했다. NH투자증권 역시 2378억원에서 2055억원으로 38.5% 줄었다.

이 같은 구도가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안갯속이다. 지난 7일 기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총 45곳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딜을 확보했고 한국투자증권이 11건, 삼성증권이 9건, NH투자증권이 8건을 기록했다. 반면 KB증권은 2건에 그쳤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업가치 약 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노인터내셔널과 10조원 규모의 구다이글로벌을 대표 주관하며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가치 1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무신사와 메가존클라우드, 리벨리온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메가존클라우드와 리벨리온을 앞세워 선두 군히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도 리벨리온, 라이너, 업스테이지, 무신사, SB선보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싸이이에 스케미칼과 엠에스비이오 등 2곳에 머물러 있어 실제 딜 성사 여부가 연말 순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RIA 세제혜택 받으려면 결제일 확인해야”

금감원 Q&A

해외주식, 주문체결일부터
결제 완료까지 시차 있어

최근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종합투자계좌(IMA)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제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결제일 차이로 세제혜택이 줄거나, IMA에 가입한 다음 날 취소하려 해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사례를 토대로 RIA와 IMA, ETF 특정증권신탁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주문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결제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자 A씨는 RIA에서 해외주식을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5월 29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가 6월 2일 완료되면

서 기대했던 100%가 아닌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습니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계좌에 입고해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올해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변경되는 시점에 해외주식을 매도한다면 결제에 걸리는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 완료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만큼 거래 증권사를 통해 실제 결제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도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RI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예탁금으로 제한됩니다.

IMA에 가입할 때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과 채권, 기업대출 등에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허정윤 기자

인도에 K-푸드, 싱가포르엔 한우·한돈… 수출길 넓힌다

aT, 인도 박람회서 950만달러 MOU
상반기 농축산식품 수출액 19% ↑
싱가포르에는 한우 84만달러 수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인도에서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해 1000만 달러에 근접한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이끌어 냈다. 공사는 또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축산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우·한돈 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에 나섰다.

9일 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K-푸드페어'가 열렸다. aT는 B2B 수출 상담회를 주선하고, 인도·네팔·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바이어 79여 개사와 국내업체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곰부차(음료류) ▲냉동김밥 ▲김치 시즈닝 소스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받으며 총 950만달러 상당의 MOU가 체결됐다.

상담장에서는 신시장의 통관·인증 등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했다. 또 리셉션에서는 한·인도 식품키즈'를 진행해, 인도 바이어와 국내 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K-푸드 박람회

/aT

출업체가 상호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며 비즈니스 친밀감을 쌓도록 지원했다.

8월 1~2일 이틀간은 뉴델리 소재 대형 유통매장 엠비언스몰에서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었다. 오픈키친존에서 떡볶이·김밥 등의 K-보식 품목을 선보였고, K-누들스테이션에서는 한강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현지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한국 농식품과 함께 즐길 수 있

는 문화체험부스와 행사를 함께 운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퍼스널컬러 테스트존과 ▲K-라이프스타일존 ▲한국 전통공연 ▲K-팝 커버댄스 등의 볼거리를 마련했다. 행사 말미에는 유튜브 고퇴경이 방문해 K-팝 랜덤포즈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방문객 약 1만4000명이 다녀갔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젊은 소비층, 빠른 경제성

장을 바탕으로 K-푸드의 신시장,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K-푸드페어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의 인도 및 남아시아 권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도 함께 넓혀 K-푸드 식품영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 1위·GDP 규모 4위의 인도는 젊은 층 인구 비중이 큰 만큼 K-푸드의 새로운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aT는 향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권역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대 인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18.9% 증가한 4063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1344만달러(+62.7%), 과자류 27만 달러(+21.2%) 등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싱가포르에서는 한우·한돈의 인기몰이를 추진 중이다. aT는 지난해 11월 제주산 한우·한돈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절차가 완료된 이후 현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84만달러 상당의 한우가 싱가포르에 수출됐다. 한돈 역시 현지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우·한돈은 올해 1월 싱가포르의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우자조금·한돈자조금과 협업한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재 조리장이 참석한 바 있다. 공사는 싱가포르 식품안전 당국, 수입·유통 관계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프리미엄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어 초기 인지도를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프리미엄 외식시장을 겨냥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현지 프리미엄 외식업체와 손잡고 제주산 한우국수전골, 한돈비빔밥고기 등 신메뉴도 개발했다. 이달 30일까지 DRI M(드림), GU:UM(구움), Bedrock Bar & Grill(베드락 바앤그릴), 주신정(Ju Sh in Jung), 소댕(Sodeng), COTE Singapore 등 6개 외식업체가 참여한다.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과 협업해 한국 프리미엄 전통주 페어링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1~6월 기준 한국산 농·축산품의 싱가포르 수출액은 1억108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8.2%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협하나로, 입점장려금 3억 부당 수취

판촉사원 서면 약정 없이 파견 근무
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부과

농협하나로유통이 매장 입점장려금 3억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아 쟁건 데 대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농협하나로는 시장에 출시된 지 무려 8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 명목'으로 장려금 지불을 납품업체들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안은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납품업자에게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행위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도합 3억2366만원을 수취했다.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한 장려금이다. 납품업체 총 43곳에서 받아 냈다.



세종 공정위 청사

/뉴시스

농협하나로는 2021년 1월 업무처리매뉴얼을 개정해,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자기의 사업장인 하나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출시 후 무려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출시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 기업은 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문제는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파견종업원 수와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의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故우장춘 박사 67주기’ 日 거주 후손 방한

국내 원예·종자산업 발전 토대 닦아
농진청, 한·일 원예산업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우장춘 박사 작고 67주기(8월10일)를 맞아 일본에 거주 중인 후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들과 한국·일본의 원예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 고인의 후손과 교류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故) 우장춘 박사의 농업·원예 분야 업적을 되새기고 양국 간 원예 산업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원예·종자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농업 과학자이다. 광복 이후인 1950년 귀국해 채소 종자 자급과 품종 개량 연구를 이끌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국내 원예 연구와 종자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종의 합성' 이론을



故우장춘 박사

/농진청

정립해 세계 육종학 발전에도 기여했다. 방한하는 인원은 손자·증손자 등 10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일본에서 성장하고 연구 활동을 이어간 고인의 후손들 또한 일본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은 이달 10일 수원 여가산에 있는 우장춘 박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기제사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한다. 이어 농촌진흥청장과 환담하며 우 박사의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신입 274명 채용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 담당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공개 채용이다.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입사지원서'를 받는다. 공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채용 인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및 업무상 질병처리기간 단축 등의 정책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채용 인력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품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사지원서는 1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받는다.

최종합격자는 11월24일 발표 예정이며 12월14일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2주간 에너지절약 캠페인 운영

안쓰는 기기 차단 등 행동요령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극한 폭염 및 산업체 조업률 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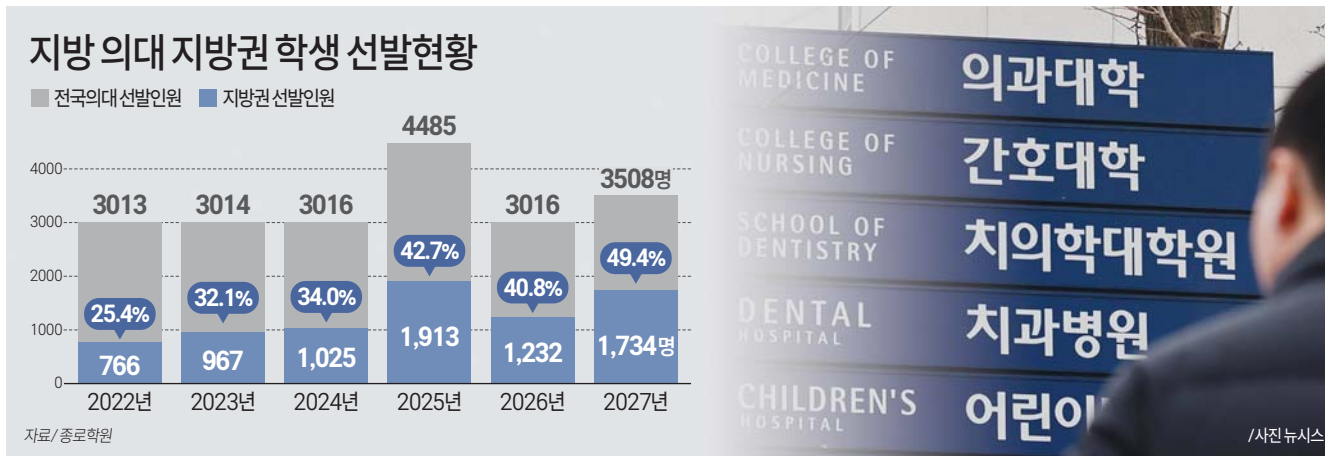
유도하는 거리 운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명동·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이 대상이다.

전력 사용을 높이는 개문냉방을 자제하고 안쓰는 기기와 조명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냉장고 문 닫기,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약의 전략'이라는 에너지절약 국민참여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생활 전략을 전파할 계획이다.

제23회 '에너지의 날(8월22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행동 독려 및 에너지 절약 운동도 진행한다. 22일 밤 9시에 광화문, 시청 등 주요 명소 등지에서 10분 소등 행사가 실시된다. 또 전국 10개 이상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에너지절약 운동을 개최해 전국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의과대학 지방인재 선발규모 확대 수도권 학생, 입시 더 어려워진다

**지역의사제 반영 등 모집인원 변화
전국 단위 선발비율 첫 50% 이하
“수도권 학생, 보수적 전략 세워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인원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지방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선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면서 지방 학생에게는 의대 진학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3508명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등 지방 학생만 지원 가능한 모집인원은 1734명(49.4%)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방 학생만 선발하는 인원은 2022학년도 766명(25.4%)에서 ▲2023학년도 967명(32.1%) ▲2024학년도 1025명(34.0%) ▲2025학년도 1913명(42.7%) ▲2026학년도 1232명(40.8%)에 이어 2027

학년도 1734명으로 늘었다.

반대로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에 그쳤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이 지원 가능한 모집인원도 크게 줄었다. 2022학년도 2247명(74.6%)이던 전국 단위 선발은 2027학년도 1752명(49.9%)으로 감소해 인원과 비율 모두 크게 축소됐다.

특히 지방 27개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38.0%에서 2027학년도 69.6%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76.5% ▲부산·울산·경남 73.7% ▲대구·경북 70.9% ▲충청 69.6% ▲강원 46.4% 순이었다. 특히 제주권은 지난해 52.5%에서 올해 76.5%로 24%p 올랐고, 충청권도 57.5%에서 69.6%로 상승했다. 지방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인원은 지난해 1232명에서 올해 1734명으로 502명(40.7%) 늘었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이 36명 증가한

데다 지역의사제 466명이 새로 추가된 영향이다.

대학별로는 동아대가 전체 모집인원의 84.8%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대 84.0% ▲경상국립대 83.7% ▲원광대 83.6% ▲동국대 WISE캠퍼스 83.3% ▲부산대 80.8% 등도 80%를 웃돌았다. 반면 ▲한림대는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이 32.5% ▲가톨릭관동대 34.5% ▲연세대 미래캠퍼스 3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로학원은 올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선발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지방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 구도가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는 서울권 학생에게는 역대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권 학생에게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확대로 역대 가장 유리한 지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수도권 수험생은 지원 전략을 보다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수돗물 냄새·소형생물 관리 강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수질변화 대비
일 최대 2회 맛·냄새물질 검사 실시**

서울 한강 원수 수온이 29도까지 치솟자 서울시가 수돗물 냄새와 소형생물 관리 수위를 높인다. 평소 주 1회 하던 맛·냄새물질 검사를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2회로 늘리고, 정수센터에서는 오존활성탄 처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한강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해 원수 수질 검사와 정수처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 원수 수온을 측정한 결과 지난달 평균 24도였던 수온은 지난 5일 최대 29도까지 상승했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고, 이 과정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서울시는 한강 분류와 취수장 등 9개 지점에서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흙·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는 2-MIB와 지오스민 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다.

평소 주 1회 실시하는 취수 원수 검사는 관심주의 단계가 되면 하루 1회로 늘



서울물연구원 조류 채수 모습.

/서울시

어난다. 경계 단계에서는 하루 2회까지 확대한다.

6개 정수센터의 정수처리도 강화한다. 오존 투입량과 활성탄 처리 강도를 높이고 중염소 투입량도 수질 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고수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형생물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정수 과정에서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활성탄 지 역세척 주기를 단축해 소형생물을 제거할 방침이다.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배수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배수지 31곳을 주 1회 이상 모

니터링해 소형생물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물연구원, 정수센터 등 관계기관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맛·냄새물질 경보제 ‘주의’ 단계가 발령됐지만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질 이상이나 관련 민원 없이 수돗물을 공급했다”며 “올해도 폭염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응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북도, ‘한국형 가상공장 플랫폼’ 만든다

사업비 21억 투입… 제조 AX 촉진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사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공장 건설 전 생산공정과 설비를 가상환경에서 설계·검증하는 ‘한국형 AI 기반 가상공장 플랫폼(KRAFT)’ 개발에 나선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통합운영·사전 검증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 5월까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장 구축 이전 단계에서 생산설비와 물류,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 설계·검증하는 플랫폼 개발이 핵심으로, 경북도는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공장 통합 설계기술과 디지털트윈 기반 사전검증 기술,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개발하고, 포항 이차전지 제조현장에 적용해 기술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간 간섭과 공정 운영 문제를 사전에 예측·분석할 수 있는 국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장 구축 기간 단축과 초기 투자비용, 재작업 감소는 물론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검증된 기술을 지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해 제조 인공지능전환(AI X)을 촉진하고, 원격공장(Factory)의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I와 디지털트윈은 원격공장을 넘어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포항 이차전지 제조현장 실증을 통해 생산공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다크팩토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연천군, ‘구석기 엑스포’ 국제행사 추진

국비지원 대상 사업 확정

연천군은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지난 5일 기획예산처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며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지난 26년 3월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사 개최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구석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학술, 전시, 체험, 국제 교류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 선사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전곡리 유적을 기반으로 한

‘연천구석기축제’를 33회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역 축제를 국제적 문화 행사로 확장해 왔다. 이번 국제행사 승인을 계기로 콘텐츠 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 참가국 및 관련 기관 유치, 학술·전시 프로그램 내실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심사 과정에서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에 대해 공익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의 운영 역량, 국고지원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국제행사 최종 승인은 연천군민과 경기도가 함께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문화유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오는 2029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남정보대, 부산기업 수출 성과 뒷받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파견

경남정보대학교가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부산 AI·IC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수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부산형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파견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진행됐다.

파견 기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 전략 세미나,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및 현지 진출 기업 방문, ‘2026 한-베 ICT 비즈니스 및업 포럼’ 등이 운영됐다. NIC는 2019년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에 설립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부산 지역 AI·ICT 분야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KOTRA 하노이무역관 등



경남정보대학교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정보대학교

의 사전 매칭을 거쳐 현지 바이어 61곳과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2364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104건과 현지 기업과의 업무 협약(MOU) 14건이 체결됐다.

경남정보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NIC 등 현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23th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2026 KEPIC-Week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 강원관광재단

“분유 검사항목 100여개”… 우유 한 잔 뒤 숨은 ‘품질 전쟁’



인터뷰

남양유업 식품기술사

식품기술사 8명 품질 최전선 포진
분유 자체 검사만 100여개 적용
법정 60여개 넘어 잠재위험 점검
생산일엔 15분 내 공장 복귀 대기
수백개 OEM에도 동일 기준 적용
5년 만의 흑자 이어 해외시장 확대

“소비자가 마시는 우유 한 잔의 ‘평온함’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매 순간 비상대기하며 감각의 촉수를 세운 전문가들의 치열한 징후 포착이 숨어 있죠.”

국내 유업체 중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의 최전선에 포진시킨 남양유업. ‘사후약방문’식 대책 대신 문제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예방 중심 품질 혁신이 유업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법적 기준 보다 훨씬 높은 ‘자체 방패’

남양유업 품질 경영의 DNA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분유’에서 기원한다. 일반 식품의 잦아드는 답안될 수 없는 엄격함을 지난 62년간 지켜오며 체득한 노하우,



남양유업 식품기술사 (상단 왼쪽부터 창창원 세종공장 품질보증부장, 원종은 천안공장 품질보증팀장, 송대영 세종공장 생산팀장, 이재구 세종공장 품질보증팀장, 하단 왼쪽부터 서경민 중앙연구소장, 최원호 나주공장장, 조영호 식품안전센터장)

/남양유업

우, 오늘날 우유·발효유·단백질 음료 등 전 제품군으로 확장 적용됐다.

가장 대표적인 대목은 검사 항목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제분유 검사항목은 60여 개에 불과하지만, 남양유업은 글로벌 기준과 수출국 규제, 잠재적 리스크까지 영끌해 100여 개에 달하는 자체 기준을 적용 중이다.

조영호 식품안전센터장은 “현장의 트러블은 미생물, 원료, 공정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다”며 “식품기술사들은 다

방면의 노하우를 엮어 위기가 번지기 전 선제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창원 세종공장 품질보증부장 역시 “담당자의 역량에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며 “쫄쫄한 시스템을 짜놓고, 누가 현장에 투입되든 동일한 최고급 품질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구조”라고 덧붙였다.

◆ 빈틈없는 ‘밀착형 릴레이 품질관리’
예방 철학은 백색 가운의 연구실부터 땀 흘리는 생산 현장, 나아가 외부 협력업체까지 거미줄처럼 이어진다.

서경민 중앙연구소장은 “단순한 레시피 조합을 넘어 공정 엔지니어링 기술까지 제품 설계에 녹여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유크림 기반 제품을 만들 때 연구 단계부터 생산 현장의 안정성까지 미리 계산에 넣는다는 설명이다.

원종은 천안공장 품질보증팀장은 “외부 협력사 관리도 예외는 없다”며 “수백 개에 달하는 OEM 제품에도 자사 제품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고 설명했다. “협력사들도 남양유업의 엄격한 관리를 통과한 경험 자체가 자사의 가장 강력한 품질 레퍼런스가 된다는 신뢰를 보낸다”고 미소지었다.

◆ “완벽함은 긴장의 소산”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날개를 달아주어도, 결국 마침표를 찍는 것은 현장을 누비는 ‘사람의 감각과 책임감’이다.

송대영 세종공장 생산팀장은 조제분유 라인이 가동되는 월요일마다 외부 약속이나 음주는 엄두도 내지 않고, 15분 내 공장 복귀 대기조를 자처한다고.

“분유는 공정이 워낙 복잡해 아주 작은 오차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누리는 안전은 당연한 결과지만, 그 ‘당연함’을 떠받치기 위해 현장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구세종공장 품질보증팀장도 “수많은 변수를 컨트롤해 매번 똑같은 맛과 품

질을 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며 “작업자들이 오감으로 포착하는 미세한 이질감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는 집요함이 곧 품질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업체 베테랑인 지병일 세종공장 부공장장의 목격한 소회는 여운을 남긴다.

“기술사 자격증 하나 났다고 품질을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제품을 다루는 이 바닥에서 우리는 아직도 겨우 걸음마를 댄 수준입니다. 품질 앞에서는 언제나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 흑자 반등 이어 글로벌 영토 확장

타협 없는 품질 경영에 사활을 건 남양유업은 경영 지표에서도 뚜렷한 반전을 증명하고 있다.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체제로 새롭게 댕을 올린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토대로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했다.

2025년 5년 만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상승하며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올해 국내 유업체 최초로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합류해(4월 베트남, 7월 몽골) 현지 유통 거물들과 잇달아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CU, 오마이걸 미미와 신상품 ‘솔직 리뷰’

오늘 씨유투브서 첫 영상 공개
월 2회 신상품 직접 시식·평가
떡볶이 쿠키·노티드 도넛 첫선

CU가 오마이걸 미미와 함께 편의점 신상품을 소개하는 리뷰 콘텐츠 ‘미미의 미미(美味)’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첫 영상은 오는 10일 CU 공식 유튜브 채널 ‘씨유투브’에서 공개된다.

‘미미의 미미’는 미미가 CU 신상품을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리뷰 콘텐츠다. 최근 실제 소비 경험을 담은 리뷰를 통해 신상품 정보를 얻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해 브랜드 중심의 상품 소개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U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미와 협업해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 평소 디저트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미가 직접 상품을 시식하고 맛과 특징 등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콘텐츠명은 출연자인 미미의 이름과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한자 ‘미미(美味)’를 결합했다. 월 2회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디저트를 비롯해 간편식·음료·협업 상품 등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신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영상에서는 CU가 이달 출시하는 신상품을 다룬다. 서울 압구정의 디저트 카페 ‘이웃집 통통이’와 협업한 ‘떡볶이 쿠키’, F&B 브랜드 노티드의 ‘바나나푸딩 도넛’을 비롯해 핫한 라이스크림, 든든한

끼 김치짜글이 덮밥 등을 미미가 직접 맛보고 평가한다.

CU는 ‘미미의 미미’를 일방적인 상품 홍보보다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중심으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평가만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자의 실제 반응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U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편의점 아라비이트생의 시각에서 매장 이야기를 풀어낸 숏폼 드라마 ‘편의점 고인물’은 공개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1억회를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텍사스로드하우스, 직장인 회식 수요 잡았다

잠실본점 100일 만에 5만5000명
평일 단체 고객 비중 41% 달해

스테이크가 직장인 회식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고깃집이나 주점 중심이던 회식 문화가 음식과 주류를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다. 특히 1인당 3~4만원대에 스테이크와 다양한 메뉴, 주류까지 즐길 수 있는 매장이 ‘가성비 회식’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미국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로드하우스’ 잠실본점은 오픈 100일 만에 누적 방문객 5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문을 연 이후 매달 전국 텍사스로드하우스 매장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텍사스로드하우스 잠실본점.

/현대그린푸드

기록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단체 고객 비중이 높다. 잠실본점의 평일 방문객 가운데 5인 이상 단체 고객 비중은 평균 41%로, 다른 매장 평균인 31%보다 10%포인트 높다. 현대그린푸드는 인근 오피스 상권의 직장인 회식 수요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초이스 등급 스테이크를 일반 스테이크 전문점보다 약 15% 저렴하게 판매하고, 점심에는 1~2만원대 세트 메뉴를 운영한다.

회식 문화가 술자리에서 식사와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원선 기자

컴포즈커피, 졸리비 손잡고 필리핀 진출

마닐라 BGC에 필리핀 1호점 오픈
현지 전용 메뉴 앞세워 소비자 공략

컴포즈커피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첫 매장을 열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지 외식 대기업 졸리비그룹과 손잡고 연내 추가 출점을 추진하는 등 필리핀을 해외 사업 확대의 주요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컴포즈커피는 지난 7일 마닐라 보나파시오 글로벌 시티(BGC)의 복합상업시설 ‘마켓!마켓!(Market! Market!)’에 필리핀 1호점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1일부터 프리오픈을 진행하며 현지 소비자 반응과 매장 운영 데이터를 점검한 뒤 그랜드 오픈에 나섰다. 프리오픈 첫 날에는 개점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는 등 관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메뉴도 선보였다. 달고나 라떼, 들체 라떼, 아인슈



컴포즈커피가 필리핀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

/컴포즈커피

페너 라떼 등 국내 인기 메뉴에 ‘오렌지 아메리카노’와 ‘솔티 크림 라떼’ 등 필리핀 전용 메뉴를 더했다. 와플 토핑 콤보를 함께 운영하며 한국식 카페·디저트 문화를 현지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업 확대를 위한 현지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컴포즈커피는 졸리비그룹 자회사인 프레스시 앤 페이스즈 푸즈(FRESH N’ FAMOUS FOODS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을 체결했다.

/신원선 기자

와인25플러스, 작가·소믈리에 협업 선택

김선우·김물길 작가 작품 라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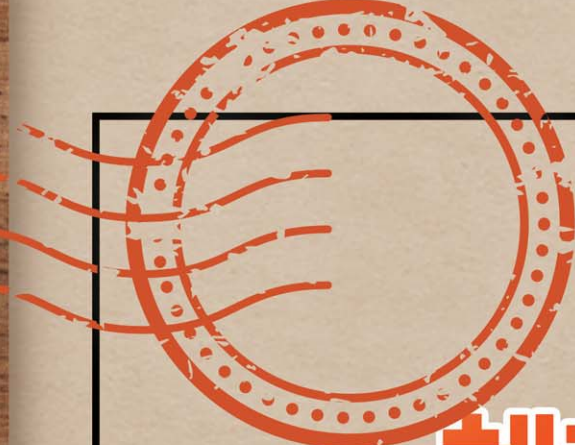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가 김선우·김물길 작가와 마스터 소믈리에 데니스 켈리(Dennis Kelly)가 협업한 한정판 아트 라벨 와인 2종을 단독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김선우 작가는 멸종된 도도새를 소재로 현대인의 꿈과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김물길 작가는 여행과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특유의 색감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Art in a bottle’ 시리즈는 ‘까베르네 소비뇽 김선우×데니스 켈리’와 ‘까베르네 소비뇽 김물길×데니스 켈리’ 등 2종이다. 각각 김선우 작가의 대표작 ‘더 드리머(The Dreamer)’와 김물길 작가의 ‘당신만을 위한 나무(A Tree Only for You)’를 라벨에 적용했다.

‘더 드리머’는 날지 못한 멸종된 도도새가 다시 태어나 별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잃어버린 꿈과 자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했다.

/김서현 기자



혜화역 내부 (1번 출구) 숨어있는 '독고'를 찾아라

그를 찾는 순간,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

숨겨진 단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비밀 미션을 완수하라.
미션 완료 후, **푸짐한 상품**을 수령하라.



2인 제주 왕복 항공+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배달의민족 4만원 쿠폰

미션 기간 | 9월 말까지

* 본 이벤트는 참여형 이벤트입니다. * 상품은 최종 미션 완료자에 한해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품(5만 원 초과)의 경우 관련 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문의 전화 | 02-332-4902



“휴머니티 향한 진보”… 현대차그룹 비전, 전 세계로 퍼져

기아 ‘PV5 WAV’ 기술 스토리 영상 공개 약 3주 만에 조회수 1000만 돌파 PBV 활용 아이디어 등 응원 잇따라

정이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경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미래 모빌리티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이 전 세계에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제작한 기아 ‘PV5 WAV’ 기반 기술 스토리 영상 ‘더 무빙 룸(The Moving Room)’이 공개 약 3주 만에 현재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일 현대차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23년간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은유 씨가 기아 ‘초록여행’의 지원을 받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아내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은 이날 기준 약 1020만회 조회수를 달성, 총 1159건의 댓글과 9100건의 좋아요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시청자들의



현대차그룹 기아 PV5 WAV와 함께 23년 만에 여행을 떠난 김은유 씨 가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PBV(목적기반차량)의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댓글이 705건(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그룹과 초록여행에 대한 감사의 댓글이 217건(18.7%), 김 씨와 가족을 향한 응원과 공감의 댓글이 205건(17.7%)으로 나타났다.

PBV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705건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의료·돌봄 분야가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교육·문화 28.9%, 이동·여행 14.0%, 생활·상업·공공 8.2%, 반려동물 7.4%, 재난·응급 7.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돌봄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진료소와 심리상담 서비스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교

육·문화 분야에서는 이동식 도서관과 VR 체험 교육관, 촬영 스튜디오 등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이 다수 언급됐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캠핑카와 이동식 숙소, 생활·상업·공공 분야에서는 팝업스토어와 이동식 주방 등 제안됐다. 유기견 구조 서비스나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이동식 사랑방, 스마트 침대와 생체 모니터링 등 아이디어도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이 아이디어를 관련 사업 부문과 공유해 향후 고객 관점의 서비스 기획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에 주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하다”며 “이번 여행으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百貨, 지방 특화 크리에이터 확대

‘롯데백화점 앰배서더’ 2기 모집 SNS 계정 보유 크리에이터 대상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앰배서더’ 2기로 활동할 신규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앰배서더’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롯데백화점의 브랜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인플루언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롯데백화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대상이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롯데백화점의 공식 콘텐츠 파트너로 활동한다. 신규 팝업과 브랜드 입점 등 주요 행사를 먼저 경험한 뒤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시상과 웰컴키프트, 활동비 등이 제공된다.

이번 2기에서는 ‘지방 특화 크리에이터’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여행 수요가 늘고 SNS를 통한 여행·쇼핑 정보 탐색이 보편화되면서 지방 점포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거주 앰배서더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신선했던 ‘지역 특화 미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매월 대표 도시를 선정해 현지 점포의 특색



을 소개하는 콘텐츠 기행 ‘로컬 트립’도 진행한다.

지난 5월 출범한 ‘롯데백화점 앰배서더 1기’는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패션·뷰티·식음료(F&B) 등 유통 트렌드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3개월간 총 795건의 콘텐츠를 발행했다. 누적 조회수는 1982만 회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잡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한 ‘현대기물’ 팝업 관련 앰배서더 콘텐츠는 조회수 50만 회를 넘어섰으며, ‘좋아요’와 ‘공유’를 합쳐 약 2만 건의 반응을 기록했다. 해당 팝업의 객단가는 행사 일주일 동안 전년 동기간 행사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교원그룹 ‘키노크’, 오픈 2주년 기념행사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 강형욱 훈련사 토크콘서트 등 진행

교원그룹이 운영하는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노크(KINOCK)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9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Kinock 2nd Birthday : Play & Relax’를 주제로 호텔 내 카페 스니프(Sniff), 로비, 페스타존 등에서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오는 30일 오후 2시 카페 스니프에선 강형욱 훈련사가 ‘무엇이든 물어보게’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통해 투숙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 훈련사는 이날 반려동물과의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행동 교정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투숙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정된 미션을 수행해 스탬

프를 모두 적당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전문 작가가 반려동물의 모습을 직접 그려주는 강아지 일러스트 프로그램도 마련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키노크의 전문 훈련사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마사지 클래스도 열린다. 클래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근육 이완과 척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방법을 배우고 교감을 나눌 수 있다. 클래스는 지하 1층 페스타존에서 진행한다.

펫푸드 전문 브랜드 봄봄과 협업한 ‘벳마카세’ 부스도 준비했다.

2024년 8월 문을 연 키노크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과 다양한 펫 특화 시설, 차별화된 식음료(F&B)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며 국내 대표 펫 프렌들리 호텔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지역경제 활성화 주역 찾는다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지역경제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고유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해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지원해 지방소멸에 대응해 왔다. 올해는 특화자원의 생산·가공·유통 등 가치사슬을 지역 안에서

연계하고 디자인·브랜딩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의 소외지역 상품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상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 온 숨은 주역까지 폭넓게 발굴해 우수한 경험과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총 9점이며 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중소기업 또는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접수된 추천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2026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부패방지·규범준수 인증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공영홈쇼핑 이일용 대표(오른쪽)이 지난 7일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동국제약, 취약아동과 놀이공원 나들이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이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아이자람’ 활동을 펼쳤다. 동국제약은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초록우산 및 아동복지시설 핵심원 소속 아동들을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국제약



애경산업, 서울시 약자에 53억 물품 기부

애경산업은 지난 6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3억 원 상당의 제품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기부전달식’에서 김재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 김정안 희망을 나누는사람들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애경산업



IPARK현산, 어르신 여름철 건강식 제공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전달식과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IM사회공헌재단, 여름방학 돌봄공백 해소

IM사회공헌재단이 여름방학 기간 돌봄 수요를 지원하고자 아동센터를 운영한다.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iM단디지역아동센터’의 학년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여름캠프, 금융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M사회공헌재단

오늘의 날씨

8월 10일 (월)

음력: 6월 28일

수도권 날씨

25~3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3

해질 / 19:31

백령도 24/32

파주 25/34

연천 25/34

인천 25/34

수원 25/34

평택 25/35

가평 24/34

서울 25/34

양평 24/34

용인 25/34

동두천 25/34

용인 25/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회장은 왜 무죄인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2022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시읍소 채석장에서 약 30만㎡에 달하는 석분토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20여 년에 걸쳐 대규모로 쌓아온 아적 사면이 붕괴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이 법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서 계열사의 안전보건을 지배·관리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가목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법적 대표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라고 해석하면서, 그룹 회장이나 지주사 대표이사가 계열사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해당 계열사의 안전보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법원은 정도원 회장이 삼표(지주사) 대표이사이자 삼표산업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긴 했으나,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총괄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룹 회장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실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룹 총수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판결로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

등 단순한 그룹 내 지위나 계열사 이사 겸임 사실만으로 곧 해당 계열사에서의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귀속이 핵심 판단 기준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룹 회장을 계열사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기소하려면 직위나 계열사 이사 겸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열사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총괄 권한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부과해 업무수행 체계를 분명히 구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이다. 특히 지주사와 계열사 간 안전보건 관련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실질적 권한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

AI 혁신, 절차부터 혁신해야



김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학습할 기록이 없다면 그럴듯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믿을 만한 판단을 만들기는 어렵다. 보험연수원의 AI 합작투자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공식 문서 없이 전화로 반대 입장만 전했다”며 이를 ‘유령행정’이라고 불렀다. 보험연수원 10억원과 대만·싱가포르 기업 15억원 등 총 25억원을 출자해 교육 AI 솔루션을 사업화하려던 계획이 금융위의 제동으로 좌초될 처지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투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이사회는 결국 연기됐다. 하원장은 금융위의 반대로 정상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에서 금융위의 사업 개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의 영리회사 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근거부터 문서로 밝혀야 한다. 감독당국의 한마디는 유관기관에 사실상 지시처럼 작용한다. 그런데 전화로 전달된 반대에는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누가 책임지는 판단인지도 남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통로도 흐릿해진다.

하지만 ‘AI’라는 두 글자도 모든 질문을 지워주는 면하는 아니다.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험연수원은 업계가 함께 만든 비영리기관이다. AI 신사업이라도 출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와 왜 손잡았으며, 손실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 이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취

득 원가로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풋옵션을 뒀다는 설명 역시 위험을 낮추는 장치일 뿐 사업성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노조는 이사회 승인 전 합작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 자본금 납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다수 이사가 사업성과 절차를 우려한다는 주장도 내놔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는 더 가려져야 하지만, 연수원이 투자 타당성과 의사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큰지가 아니다. 금융위는 반대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과 합작사 선정 기준, 투자 위험과 사전 진행 경위를 내놓아야 한다. 오는 10일 예정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기자회견도 ‘월권’과 ‘직권남용’이라는 말의 수위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 (음 6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邁進하세요. 60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8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49년생 희망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61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73년생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85년생 잠시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50년생 예정된 여행이나 출장은 잠시 미루세요. 62년생 새로운 기운을 위해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현재 상태를 잘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51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63년생 달빛이 하늘에 환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환합니다. 75년생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방입니다. 64년생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는 것을 너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88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53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함이 좋겠습니다. 65년생 곤욕을 치루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만사해결 되었습니다. 77년생 지금은 운대가 다소 약합니다. 89년생 여색을 조심하세요.



54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편안하고 순탄한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90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도 삼가 해야 합니다.



55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가끔씩 내일로 미루세요. 67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이루어집니다. 79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91년생 혼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지세요.



56년생 방황을 하던 중 뒷사람이 돕게 됩니다. 68년생 외출을 삼가는데 좋습니다. 80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92년생 마음이 산란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입니다. 93년생 모든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58년생 고민하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70년생 평소보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82년생 물가에서 노는 것을 가끔씩 삼가는데 좋습니다. 94년생 원대한 소원이 뜻밖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59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 기분이 좋아집니다. 71년생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보람찬 하루입니다. 83년생 욕심내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5년생 오늘은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운명 알기

존재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다. 그러나 그 숙명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운명이다. 끝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명(命)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소설 대망(大望) 중에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다. 그는 무시와 치욕 속에서도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버틴 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어 에도막부를 연 인물이다. 그가 최종 승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 인욕의 힘이였다. 인욕의 고통이 그가 운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버티는 인생은 고(苦)라고 일갈했다. 행복이라 여가는 것도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 영원히 지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건 따라 행복이었던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이 운명의 재료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결핍은 욕구를 잉태하고 있기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으려 하는 욕구는 본능인 것처럼 말이다. 인생의 여정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작용하는 원칙이나 섭리들이 느껴지고 알게 되기 시작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이지러짐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현상들, 별이 움직이고 밝고 흐려짐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데서 운명의 프로토콜을 추출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들이 북회씨와 주나라 문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6	5		8	
6	3			2				1
	5	6				7		1
			4		5			
8		9				6	5	
	6						7	9
				9				
3		1	7		4			

결합스도쿠

153문제

6				3	4		2	
2	8		5				9	
7								
			7	8				4
	7						8	
5				2	6			
								9
	2				9		6	8
9		4	3				7	

컬러스도쿠110

120문제

9	8	2	7	9	2	1	6	8
9	7	1	8	6	9	8	2	9
6	2	8	2	1	8	7	9	9
7	9	9	1	2	8	6	2	8
2	6	8	9	9	7	8	1	2
1	8	2	6	8	2	9	9	7
2	1	6	8	7	9	2	8	9
8	9	7	2	2	1	9	8	6
8	2	9	9	8	6	2	7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2	8	9	8	7	9	6
8	9	9	6	7	1	2	2	8
6	7	8	2	1	8	9	1	8
2	8	1	9	2	7	8	6	9
9	8	9	1	8	6	2	2	7
7	2	6	9	8	2	1	8	9
8	1	8	2	6	9	9	7	2
9	6	2	7	1	9	8	8	2
2	9	7	8	2	8	6	9	1



인도에 K-푸드
싱가포르엔 한우
수출길 넓힌다
L1

metro®

Life

의과대학
지방인재
선발규모 확대
L2



“빛 다루는 ‘유리공예’ 매료… 나만의 희소한 작업 이어갈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리공예가 곽 동 준 작가

“유리공예의 매력은 빛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리를 활용해 조각 작업을 하는 곽동준 작가는 유리공예의 매력을 이같이 표현했다. 표면의 질감과 색, 함께 사용하는 오브제에 따라 빛을 담아두기도 하고 투과시키기도 한다. 여러 각도로 연마된 면과 접합된 유리의 결을 통과한 빛은 또 다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곽 작가는 “유리는 시각적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재료”라며 “표면의 연마 정도에 따라 빛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가두어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모교인 남서울대학교 공간조형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판유리를 투명한 접착제로 여러 겹 붙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뒤 돌을 조각하듯 자르고 깎아 형태를 완성하는 ‘접합과 연마’가 그의 작업을 대표하는 기법이다.

◆판유리를 붙이고 깎고 연마하다… ‘접합과 연마’로 찾은 길

곽 작가와 유리의 인연은 대학 진학과 함께 시작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 대학에서 처음 마주한 유리공예는 그에게 전업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이후 국내에서 열린 체코 유리 작가들의 전시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접합과 연마’ 기법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후 일본과 필리핀, 스페인 등 해외 작가들이 같은 기법으로 조형적인 표현을 풀어내는 작품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집중했다.

곽 작가는 “체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보고 지금의 기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유리를 갈아내는 기계 앞에 서서 금강



곽동준 유리공예 작가 겸 남서울대학교 공간조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대학 진학하며 유리와의 인연 시작 전시 접하며 접합과 연마에 빠져 유리 겹겹이 붙이고 깎아내며 작업 기계 대신 손 도구로 유동성 표현

사에 갈려나가는 기물에 집중하고, 한 단 계씩 마감해 완성해 나갔다”며 “다른 생각 없이 한 가지에 몰두한다는 것이 도를 닦는 과정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가 주력하는 기법은 ‘접합과 연마’가운데서도 연마다. 접합이 판유리를 붙여 작품의 바탕이 되는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연마는 이를 원하는 형태로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곽 작가의 작업은 유리 표면을 조각하

는 인그레이빙과 비교적 가깝지만 제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판재로 생산된 창문 유리를 투명도가 높은 접착제로 붙여 원하는 크기의 덩어리를 만든 뒤 자르고 다듬는다. 깎아내면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연마한 표면에 다시 유리를 붙여 작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대리석과 유리를 결합하거나 투명도가 다른 유리를 섞어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작업 방식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기계를 이용해 평평한 면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이후 손에 들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유동적인 표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곽 작가는 공예에서 기술의 숙련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기법에 관심이 생기든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에게도 공예에만 ‘장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랜 숙달과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비틀어진 기둥에서 ‘우연적 익숙함’까지… 변화해온 작품세계

곽 작가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는 의미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자신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틀어진 기둥을 만들었다. 외부의 힘에 스스로를 변형하며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2009년 선보인 ‘공간 속에 존재하다’가 대표적이다. 이후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적응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형태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작가에게는 즐거운 조형적 시도였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은 달랐다. 깨질 수 있다는 유리의 특성과 불안정해 보이는 형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관람객들이 있었다. 이때부터 곽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관람자와의 소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찾은 것이 ‘시각적 단단함’이었다. 유리를 마치 돌처럼 단단한 물질로 보이도록 표현하면서도 일부를 깎고 연마해 광택을 살려 내부의 투명함을 드러냈다. 이후에는 색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접착제를 염색해 추억과 기억 같은 개인적인 의미를 담았고, 거울과 판유리를 함께 붙여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마주할 미래를 한 작품 안에 표현하기도 했다.

변곡점은 작품에 특정한 이야기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찾아왔다.

곽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작업 과정이 어느 순간 진실이 아닌 ‘거짓’을 포장하는 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무념, 무상’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유리를 붙이고 깎고 다듬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형상이 나타났다. 의도하지 않은 반복적인 행위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발견하는 경험은 이후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우연적 익숙함’이라는 주제로 발전했다.

◆정답 대신 관람자의 해석 남겨

이러한 생각은 최근 작품인 ‘Look in (yellow)’과 ‘Look in (Blue)’에서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제작한 두 작품은 특정한 형태를 철저히 배제하고 표면을 거친 돌처럼 마무리해 마치 돌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듯한 모습을 구현했다.

작품명 ‘Look in’은 말 그대로 관람객에게 ‘안을 보라’고 요구한다. 작품 가까이 다가와 안과 밖을 번갈아 바라보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곽 작가는 “관람자가 작품의 안을 보고

밖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표현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이런 행위를 통해 관람자는 작품과 소통하고, 궁금증을 가진 채 작가와 대화하며 이해하게 된다. 작품 하나로 작품과 관람자, 작가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의 결말을 관람자에게 넘겨주는데는 전시장에서 겪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작품을 만든 뒤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 전시해도 관람객들은 때때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곽 작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품에 반드시 하나의 정답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꼭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라며 단정을 지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말을 열어두게 됐다”며 “해석은 관람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만의 경험 벗어나 관람자와 소통 표현 내려놓고 ‘우연적 익숙함’ 발견 정답 비워두고 해석은 관람자에게

희소한 작업으로 독보적 존재될 것 후배작가 위한 창작공간 마련 ‘꿈’

◆깨지고 다쳐도 다시 유리 앞에… ‘독보적인 존재로 남고 싶어’

유리를 깎는 작업에는 위험도 따른다. 덩어리를 잘라내고 깎다 보면 작게 부러진 조각이 눈 옆을 스치는 일도 있다.

그는 “간혹 유리에 베이거나 다친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흉장 같은 것이라고 자랑도 한다”면서도 “그런 흔적을 강하게 남겼으면서도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면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과감한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위로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그의 작업은 계속된다. 이달 공예가협회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T.I.D.E 단체전, 10월 아트페어 등이 예정돼 있다.

그가 처음 유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품어온 목표는 하나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곽 작가는 “처음 유리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는 희소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며 “독보적인 존재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건이 좋아진다면 희소한 작업을 추구하는 후배 작가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곽동준 작가의 유리공예 작품

- 1 '공간 속에 존재하다'
- 2 'Rainbow fish'
- 3 'Look in (Blue)'



메트로 한줄뉴스



▲“스토킹 연상” 목소리에…스포츠콘텐츠 ‘스토킹’, 7년 만에 채널명 변경
▲이강인, 오늘 서울서 AT마드리드 입단식…‘전례 없는 특급대우’ /사진 뉴시스

▲과거 성 접대 7경기서 한국 축구 무패…FIFA 징계 가능성은
▲‘22경기 무패’ 김상식호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현대컵 4강전

▲‘손서연 23점’ U-17 여자배구, 이탈리아 3-1 꺾고 세계선수권 3연승
▲김주형, PGA 원덤 챔피언십 3R 3위 도약…선두와 한 타 차